

사회

“스티븐스 美대사 온다” 설레는 설월여고생들

학생 편지요청 따라 특강... 질의응답 시간도

“초청 편지 잘 받았습니... 광주를 방문하는 데 그때 특강을 해도 될까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13일 광주 설월여자고등학교에서 특별강의를 가질 예정이다. 스티븐스 대사의 이번 특강은 설월여고에 재학중인 한 학생의 편지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광주시와 설월여고 등에 따르면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13일 오후 광주 설월여고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할 계획이다. 이번 특강은 지난해 11월 설월여고 영자신문인 ‘설월 타임즈’ 학생기자 배지성(3년)양의 편지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배양은 A4용지 2장 분량의 영문 편지에서 여성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맡게 된 과정과 학창시절

등을 묻는 서면 질문과 함께 특강도 요청했다. 당시 스티븐스 대사는 “기회가 된다면 꼭 특강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지난 3월 말 설월여고 측에 13일 특강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설월여고측은 “생각지도 못한 스티븐스 대사의 특강을 듣게 돼 교직원과 학생 모두 기대에 부풀어 있다”면서 “특강 이후 학생들과 20분 정도의 질문 응답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975년부터 2년간 충남 예산의 한 중학교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스티븐스 대사는 2008년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한 뒤 2009년 한미우호상을 수상했으며, 최근에는 천안함 침몰현장을 방문해 애도의 뜻을 표하는 등 남다른 한국사랑을 보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부 지원 끊기고·지역사회 관심 줄어 영호남 대학생 교류 ‘시들’

1999년 240명... 10년 지나 93명으로 ‘뚝’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시작한 ‘영호남 대학생 교류’가 정부의 지원 중단과 대학 및 지역 사회의 관심 부족으로 해마다 참여 학생들이 줄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영호남 대학생 교류는 지난 1999년 전남대·경북대가 동서화합 차원에서 시작한 뒤, 울산대와 부산대가 합류했다. 이후 2003년 민족통일광주협의회

와 동서교류재단 등 양지역 사회단체들이 미래 영호남 화합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후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첫째 1학기에 240명(전남 120명·경북대 120명)이 참여했으나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들어 1학기에는 93명으로 축소됐다. 올해는 전남대학생 중 61명이 경북지역(경

북대 40명·부산대 2명·울산대 1명)으로 등록했으며, 경북대 30명·부산대 2명 등 영남지역 학생은 32명만이 전남대에 등록했다. 영호남 대학생 교류는 한 학기를 기본으로 애초 등록금·기숙사비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80~100만원)과 기숙사비(100만원 내외) 등의 지원을 중단하면서 참가자 수도 자연히 감소했다. 전남대와 경북대 학생들은 첫 해인 1999년 한 학기당 120명씩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나 교과부가 2002년부터 지원을 중단하자 양 대학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참가 정원을 90명으로 줄였다. 이어 2003년에는 한 지역에서 60명, 2005년에는 40명까지 정원이 축소됐으며 그나마 기숙사비 110만원은 학생들이 자체 부담하고 있다.

지난 8일 전남대에서 열린 ‘영호남 대학생 교류 환영의 밤’에 참가한 경북대 정영웅(3년)씨는 “호남 문화체험을 위해 지원했다”면서 “한 달 가량 전남대에 다니고 있지만 지역감정 같은 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교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나 양지역 지자체의 지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유채꽃 ‘활짝’ 영산강의 봄 휴일인 11일 시민들이 한 폭의 수채화를 떠올리게 하는 나주시 영산강 둔치의 유채꽃 사이를 여유롭게 걷고 있다. 영산강 둔치의 유채꽃밭 나들이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따라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전화번호 바뀌도 협박 문자 계속’

알고보니 은행원이 고객정보 빼내

광주지법 “은행도 책임”

주부 A씨는 지난 2008년 초에 ‘악몽’ 같은 일을 겪었다. 갖은 욕설이 담긴 협박성 문자메시지로 인해 밤잠을 설친 것이다. 참다못한 A씨는 전화번호까지 바꿨지만 ‘협박 문자’를 피할 수 없었다. 광주은행 여직원인 김모(41)씨가 내부전산망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알아낸 뒤 협박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후 김씨가 자신의 남편에게까지 “당신 아내(A씨)의 남자관계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보내자 분노가 폭발했다. A씨는 즉시 수사기관에 김씨를 고소하는 한편, 해당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김진상)는 11일 A씨가 광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은

행측은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이 고객의 정보를 조회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외로 이용한 행위”라며 “은행이 업무와 무관한 고객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교육한 것 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은행 직원 김씨는 2008년 1월 초부터 은행전산망을 통해 원고 A씨의 바뀐 휴대전화 번호와 남편의 직장주소 등을 알아낸 뒤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등기우편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자신에게 소개해준 남성과의 혼인빙자간고 소송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지않자 113 차례나 A씨와 남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9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기업자 자살... 교육계 전반 수사 확대될까

광주시교육청 ‘노심초사’

“왜 자꾸 이런일이...”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계 관련 비리 관련 수사가 언론 등에 보도돼 부담 전기업자가 자살(본보 4월 10일자 3면)하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일단 시교육청은 자살한 박모(55)씨가 교육청과 관련된 공사수주 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 경찰이 교육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확대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또 다른 직원은 “최근 검·경에서 학교 리모델링 업체 및 교구납품업체·창호제작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학교 관련 업체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이리다가 정말 무슨 일이 터

지지는 않을 지 걱정이 앞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계에서는 검·경의 전방위적인 교육비리 수사에 대해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교육비리에 대한 수사 때문에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씨의 자살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어서 향후 교육비리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씨가 광주지검으로부터 첫 번째 출석 요구서를 받은 뒤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고교 교장은 “교육계 비리를 뿌리 뽑는데는 동의하지만, 투서 등에 근거한 무차별적 수사는 교원 추락 등 부작용도 크다”고 지적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산책로 동백나무 슬쩍 북부경찰, 4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1일 산책로에 심어진 동백나무를 몰래 캐간 최모(45·광주시 북구 삼각동)씨를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55분께 북구 삼각동 야산 산책로에서 40cm 높이의 동백나무 등 2그루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관상용으로 심어두려고 미리 준비해간 모종삼으로 나무를 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할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최씨를 붙잡았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완도 바다에 30대 女 변사체

11일 새벽 5시55분께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인근 한 모텔 앞바다에서 김모(여·39)씨가 숨져있는 것을 선원 박모(48)씨가 발견, 완도해양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김씨는 검은색 코트와 미니스커트를 입은 상태였다. 해경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화대 안 돌려주자 경찰에 신고

“파트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목살한 50대 유홍주점업자가 손님들의 신고로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11일 유홍주점 손님들을 상대로 속칭 ‘2차’를 앞선한 양모(여·55·광주시 동구 계림동)씨를 상대로 앞선 혐의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새벽 0시30분께 동구 계림동 A유홍주점에서 손님 김모(37)씨 등 2명에게 40만원을 받고 여성 2명을 연결해줬는데, “파트너들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며 김씨 등이 화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는 것. ○김씨 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양씨는 “손님들이 신고하지 않을 줄 알았다”며 후회. /김철호기자 khh@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eoul High School' (서울고시학원) featuring recruitment for police officers and various educational cours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omotional text.